

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

重戰構造와 國民黨 '보나파르트의 國家'의 형성 및 그 특질
-50년대를 중심으로 하여-

曾健民

主催：「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執行委員會

主管：台灣事務局・台灣地區政治受難人互助會

協贊：日本事務局、韓國事務局

後援：中國統一聯盟

台灣社會科學研究會

夏潮聯合會

勞動黨

時間：1997年2月22日～23日

場所：劍潭海外青年活動中心（台北市中山北路四段十六號）

重戰構造와 國民黨 '보나파르트의 國家'의 형성 및 그 특질
-50년대를 중심으로 하여-

曾健民

重戰構造와 國民黨 '보나파르트적 國家'의 형성 및 그 특질
-50년대를 중심으로 하여-

曾健民

들어가며

1. 두가지의 관점에서
 - 1) 중전구조라고 말하는 관점
 - 2) '보나파르트적 국가'와 중전구조 아래서의 國民黨 정권
2. 國共內戰에서 國民黨이 대만에서 일으킨 內戰反共政權 및 사회지배체제(1945-1950)
 - 1) 중국내전 정세 아래에서 지방정부의 시기(1945-1948)
 - 2) 國民黨이 대만에서 일으켰던 내전반공정권의 시기(1949-1950)
3. 중전구조화에서 國民黨내전반공정권의 '보나파르트적 국가'로의 질적 변화(1950.6.25 이후)
 - 1) 냉전과 내전의 결합(重戰의 형성)
 - 2) 아메리카의 동아시아 냉전에 대한 對대만 '지원' 체제(米援體制)
 - 3) 國民黨 '보나파르트적 국가'의 확립-국민당개조, 농지개혁, 지방자치, 백색 테러
4. 國民黨 '보나파르트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지배구조 및 그 특질
 - 1) 정치구조와 지배제도
 - 2) 사회경제구조와 지배제도
 - 3) 사회통제-반공계엄체제
 - 4) 國民黨 '보나파르트적 국가'의 동아시아 냉전에 대한 종속성과 일정의 자주성
5. 結論

들어가며

제10권 31년2호

전후대만사회의 발전을 테마로 한 각종의 논술에 대해서, 그 應用한 이론적 구성으로 보아, 기본적으로는 이하의 2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구미의 관점에서 제3세계국가의 발전문제를 논한 현대화이론. 또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의 경험을 원조로 依賴(종속)이론이다. 이 논술에서, 國民黨정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諸說이 있다. 예를 들면 독재정권, 외래정권, 당국체제, 권위체제, 등등. 특히 80년 전후에 일어났던 國民黨정권의 대전환이라 권위체제라고 말하는 쪽이 크게 유행하였다. 이 관점은 國民黨정권의 表層, 혹은 일면을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고, 본질적 문제에 접촉되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諸說은 國공내전과 동아시아 냉전이 國民黨정권의 성격에 주었던 결정적 작용을 경시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國民黨정권의 대외관계의 종속성과 자주성이라고 말하는 양면성이 설명되어지지 않았고, 전후, 대만사회가 지주, 소작제를 주로 한 사회에서, 자작농을 주로 하는 사회로 변하고, 자본주의경제를 주로하는 사회로 발전하였던 과정에서, 國民黨정권이 완수했던 사회적 역할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상술의 문제에 대해서, 본고에서는 감정론과 도덕론을 배제하고, 서측 중심의 관점과 라틴 아메리카 경험에 의한 이론에서 떠나, 대만 및 중국과 세계를 관련지어, 특히 대만의 구체적 맥락에 따라서 사회과학의 지식으로서 연구를 진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근본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냉전과 내전에 기초를 둔 대만사회의 변천과 國民黨정권의 형성과 전화의 성격에 대해서, 지면의 관계로, 본고에서는 50년대 전후에 한하여 논한다.

1. 두가지 관점에서

본고는 주로 2개의 고나점에서 논하고 있다. 하나는 중전구조라고 말하는 관점. 또 다른 하나는 아메리카이론의 '보나파르트적 국가'적 성격이라고 말하는 관점에서이다.

1). 중전구조라고 말하는 관점

(1) 대만에서 중전구조의 기원

제2차세계대전은 파시즘의 패배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구래의 구주자본주의세계의 붕괴와 그것에 連動한 식민지주의의 와해를 초래했다. 이것에 따라 제2차세계대전의 전쟁수요에서 성립된 아메리카의 고도생산력은 위기에 면했다. 어떻게하여 구세계로 替하고, 아메리카 주도의 신세계시장을 창출하고, 아메리카 자본주의의 확대재생산을 유지할 것인가, 전후 아메리카 정부로서 최대의 과제가 되었다.

세계냉전은 바로 아메리카의 전세계적 확장, 패권확립의 과정에서, 전세계의 사회주의세력, 민족해방세력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각종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형성에 대한 대항이었다. 그것은 미소 대항을 주축으로 하고, 그 양극의 대항이 세계 각지역, 각민족에게 확산되고, 각지의 사회모순에 개입하기 위해 형성되었던, 세계규모의 양진영의 대립이다. 동아시아 냉전은 그 일부인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특수성이기다 하다.

원래 동아시아를 지배하였던 일본제국주의와 서구제국주의가 붕괴된 후, 태평양전쟁의 유일의 승자 미국은 신속하게 지역적 패권의 眞空을 埋하고, 각 민족 내부의 모순에 개입하여, 반 파시즘 우파, 파시즘 잔존분자, 봉건, 구식민지세력과 결합, 그것을 육성하면서 각민족의 계급 및 민족해방세력을 탄압했다. 이것은 전후 동아시아 각국, 각민족공통의 역사이고, 동시에 동아시아 냉전의 본질이기도 하다.

같은 것으로, 전후 미국은 적극적으로 중국의 국공내전에 개입했다. 그러나 중국대륙의 거대한 내전정세는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은 아니고, 그 때문에, 미국은 1947년 이후 서서히 방관자적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1949년말 국민당정권은 대륙에서 대만으로 패주하고, 반공내전정권이 세워졌다. 1950년 2월 신중국은 소련과의 사이에서 우호조약을 체결하고, 친소, 반미노선을 채택했다. 동월 미국 국내에서, 메카시 의원의 격렬한 반공이론을 중심으로 한 반공의 반공의 바람이 불었고, 6월에는 조선전쟁이 발발했다. 미국은 다시, 바다를 隔하여 대치한 중국 내전에 개입하고 대만을 동아시아 냉전에 끌어들였다. 중국을 봉쇄함으로써 세계적인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혁명의 물결을 그칠수 있었다. 이것이 즉 대만에 대한 중전구조의 기원이다.

(2) 중전구조의 내실

전후, 파시즘과 식민주의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제3세계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계급해방 혹은 민족해방세력과 봉건, 구식민지세력과의 모순을 안고 있었다. 모순의 극단인 형식은 즉 내전이다. 미소 양극을 주축으로 한 냉전은 그것이 세계적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대항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정도의 차가 있고, 필연적으로 각국의 내전으로 확장하고, 개입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냉전은 각국내전의 자연스런 경과를 변화시키고 말았고 내전 중에 소멸되지 않은 계급 혹은 세력을 인공적으로 同生시켜, 사회의 자연스러운 변혁을 저지, 지연, 왜곡시켰던 것이다. 이것을 본론에서는 중전이라고 약칭하고 있다. 중전은 각종의 형식에서 전후의 제3세계에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세계냉전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동시에 그것은 세계냉전의 특징이기도 하다. 중전의 장기화와 고정화는 그 해당민족 혹은 사회에 중전구조를 만들어낸다.

냉전은 내전을 고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특히 진전시켜 그것을 강화하고 그것을 개조한다.

동시에 내전의 질을 새로운 구조체라하여 냉전의 의지에 존속시킨다. 이것이 즉 중전구조이다. 중전구조는 민족과 사회의 자연스러운 변혁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이하의 諸相을 만들어 낸다.

① 민족내부의 장기에 걸친 대립, 증오, 분열을 만들어 낸다.

② 정권의 형태, 법정체제, 경제체제, 계급관계를 개변한다.

③ 각종의 구조적 구조와 제도에서 문화, 가치체계, 의식형태, 심리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중전구조 아래에서 극단적인 반공주의로써 그것이 전부 지배하게 된다.

그 전형이 대만이다.

2) '보나파르트적 국가'와 중전구조하의 국민당정권

마살의 국가이론에 따르면 국가라는 것은 계급사회의 산물이고, 사회경제상에서 통치 역량을 점하는 지배계급으로서 정치영역에 대한 대리기관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중전구조하의 국민당정권의 하나의 국가로 부를수 있을까. 만약 부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하여 그 팽대된 국가기구와 강대한 국가권력, 및 대만사회의 발전에 대한 지배력을 설명하면 좋을가. 만약 그것이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만사회의 어느 계급을 대표로 하고 있는 것일까. 적어도 50년대 그것은 대만사회에 있어서 어떠한 계급도 대표라 할 수 없는데, 대만 신흥계급의 창조자 조차도였다. 60년대 이후 대만자본주의는 발전노선을 대디었는데, 국민당정권은 단순히 노산의 집행자에 지나지 않고, 신흥자본계급의 대리자는 아니었다. 70년대 대만자본계급과의 동맹관계를 부단히 확대하였고, 그러나 80년대에 이르기 까지 그것은 의연히 자본계급에 대한 지배력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 대리자로는 말할 것도 없이. 그 때문에 80년대의 전환기까지 그것은 일관되어, 하나의 계급적 '국가'는 아니었다.

마살의 국가이론 중에 특수한 역사조건하에서 특정계급의 속성을 가지지 않은 '예외국가'의 형성에 대해서 논한 것이 있다. 그것이 즉 보나파르트 국가이다.

50년대의 국민당정권과 마살이 제기한 보나파르트 국가를 비교하면 영자의 정치형태 와 사회관계에서 이하에 보이는 것처럼 동일한 특수점이 있다.

① 사회의 어떠한 계급도 대표가 아닌, 자신의 집단의 이익만을 대표로 한다.

② 사회의 약체화의 기반 위에서 개인에 대한 고도의 독재, 국가에 대한 고도의 자주를 만들어 내고 각 계급은 그 아래에 굴복한다.

③ 팽대한 군대, 특무, 관료가 사회의 각세표에 강고하게 서식하고 있다.

④ 정권존립의 사회기반은 주로 소규모자작농이다.

⑤ 정치상의 배척을 받아들이고, 경제상에서 자본계급과 자본은 의외로 발전을 수행하고 있다.

⑥ 과도기적인, 인공적인 의사국이다.

마살의 이론에 있어서 보나파르트국가를 구성한 요건에는 또 하나의 '특수한 역사조건'이 있다. 그래서 영자의 최대의 상위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역사단계의 상위에서, 양자의 '특수역사조건'은 다르다. 국민당정권의 특수한 역사조건이라는 것은 20세기의 50년대에 대한 중전구조이다. 그래서 보나파르트 국가의 그것은 19세기 중기 ??내전이다. 그 때문에 양자의 국가형성의 과정, 내용, 그것에 국가의 사회에 대한 지배기구도 다르다. 그렇다고 해도 본론은 마살이론에 대한 보나파르트 국가라고 말하는 개념의 중점은 그 특수 '국가'의 정치형태 및 그 사회관계 특히 상술한 ⑤에서 들었던 자산계급과의 관계라는 점에 있고, 그 때 사회적, 역사적 단계, 혹은 그것의 구체적인 '특수한 역사조건'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본론은 상술한 이유에 기초하여 보나파르트 국가라는 개념으로 50년대의 국민당 정권의성질을 총괄하는 것에 가치를 두어 고찰할 것이다.

이하의 상술한 2가지 관점에서 출발하고 국공내전과 동아시아냉전이라고 말하는 제역하에서

전후 대만사회의 구체적인 역사과정을 분석하는 일을 통하여 국민당정권의 형성과정에 대한 '보나파르트 국가'적 특질의 확립을 논할 것이다. 동시에 특히 그 구체적 특징을 분석하여 볼 것이다. 이하는 주로 4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1945년부터 1950년, 결국은 내전기에서 광복과 중국 복귀, 국공내전의 발전이라고 말하는 정세하에서 국민당내전 반공정권이 대만사회에서 형성된 과정을 논함과 동시에 사회에 대한 주로 지배내용에 대해 논할 것이다. 둘째 부분에서는 1950년 6월 조선전쟁이 발발하고 대만이 동아시아 냉전의 전선에 편입되어 중전구조가 형성되었다라는 조건하에서 국민당의 '보나파르트적 국가'가 어떻게 하여 확립될 수 있었는가를 논하고, 셋째 부분에서는 그 정치와 사회를 통제한 기관, 제도, 경제구조와 그것의 냉전과의 관계를 논할 것이다. 최후는 결론이다.

2.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대만에서 일으킨 내전반공정권 및 그 사회지배체제 (1945-1950)

대만의 중전구조는 3개의 다른 요소를 포함하여, 결합된 것이다. 그것은 대만사회와 중국내전 그것에 냉전이다. 이 3자는 동시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아니고 일정의 시간적인 차가 있다. 최초는 광복후의 대만사회와 중국내전과의 결합, 계속하여 조선전쟁발발 후의 동아시아냉전과의 결합이다. 그 때문에 최후에 우선 1945년부터 1950년에 걸쳐서의 대만사회와 중국내전이 결합된 역사과정을 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광복으로부터 1950년사이, 대만에 있어서 역사적 변화는 총괄하여 말하자면 중국내전의 범위 안에서의 변화이다.

그것은 2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1945년부터 1948년사이, 대만이 중국에 귀부한 후, 중국내전정세가 아직 진전중인 지방정부의 시기이다. 다음은 1949년부터 1950년 사이 내전에서 대만에서 撤退된 국민당 중앙정부가 대만을 근거지로하여 내전반공정권을 세우고, 신중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대항한 시기이다. 그 시기, 국민당정권은 대만사회에 각종의 지배기구와 제도를 만들었다. 그것은 국가자본주의 농업에 대한 착취체제, 반공공포통치체제 등이다. 이러한 내전반공정권 및 사회지배체제는 대만이 동아시아 냉전의 범위에 조직되었고, 중전구조가 형성된 후에 일정 정도의 개조가 더해지고, 국민당 '보나파르트적 국가'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다.

1) 중국내전정세하에서의 지방정부의 시기(1945-1948년)

대만은 광복과 중국복귀를 맞이한 후 필연적으로 중국국공내전의 대환경에 조직되었다. '내전 제일'이라고하여 국민당중앙정부는 대만에 행정장관공서를 설치하고, 특수통치를 행하였다. 일본의 (식민지) 자산을 접수하여 국영화하고, 국가자본주의를 시행하였다. 그것은 단지 국민당정권의 중요한 물질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후의 대만의 정치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후의 건설과 식료조달의 필요에서, 相前後하여 전 부징수, 수부?구, 비료환곡 등의 미곡징수체제를 시행하였다. 이것이 50년대의 농업착취체제의 기원이다.

1947년 2·28사건 후 날로 격화된 국공내전과 경제혼란이 대만을 엄습하고, 통화팽창에 따른 경제는 파경을 치달았다.

2) 국민당이 대만에서 일어났던 내전반공정권의 시기(1949-1950)

1947년 벽두, 트루만은 중국내전의 실패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국부에 대한 지지를 고쳐, 방관자적 태도를 고수했다. 국부는 내전에서 차츰차츰 패퇴하고 있었다. 장개석은 1949년 벽두 腹心の 陳誠을 대만성주 자리에 임명하고 대만의 당, 정, 군, 産의 대권을 장악시키고, 국민당국가

기관의 대만이전을 준비시켰다. 그 해 연말, 대만에 이전한 후 국공내전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치국면이 되었다. 이 시기 이하와 같은 주요한 특징이 있다.

(1) 대만과 대륙의 두 번의 장기적 격리

진성은 최초에 출입경관리를 실시하고 대륙과의 상업무역을 차단했다. 특히 국고의 황금을 대만으로 옮기고, 이것을 元手로하여 1949년 6월 15일부터 신대폐를 발행했다. 그것에 따라 대륙과의 금융 및 위체관계가 차단되었다. 이리하여 중국사회의 일원에 복귀한 대만은 4년도 채 안되어 내전에 의해 다시 중국대륙과 격리되게 되었다. 다음해 냉전이 내전을 동결시키고, 그 격리는 고정화되었다. 40년에 걸친 긴 사회격리는 이렇게 개시되었던 것이다.

(2) 반공공포통치체제

1949년 5월 20일에 계엄령이 발포되고, 37년간에 걸친 긴 계엄체제가 성립된다. 특히 더하여 동년 8월, 장개석 스스로의 손에 의해 '정치행동위원회'라는 특무계통이 재건되고, 대만사회내부의 변혁세력에 대한 반공탄압을 행하였다. 계엄체제와 특무계통은 그 후 국민당 '보나파르트적 국가'에서 공포정책집행과 고도의 독재를 유지하는 위에서 중요한 도구가 됨과 동시에 그것은 국가폭력의 실태 그것이었다.

(3) 내전반공정권의 성립

1949년 12월말 국부중앙기관이 황망하게 대만에 철수퇴각하여 왔다. 구 중국사회의 지주, 매판자본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민당국가는 통치할 사회를 잃었다. 상층의 법정체제 뿐인 대만 철폐는 광복후 형성된 지방정부의 위에서 '국가기관'을 쌓아올릴 정도로 존속하였다. 이리하여 一緒에 도망간 군대, 특무, 관료를 더한내전 반공정권이 형성되었다. 철폐와 동시에 제일단계의 토지개혁(35감조)의 실시에 착수하고, 대만사회를 '반공항소, 반공대륙'의 부흥기지로 개조하였다.

이 시기의 내전반공정권은 대륙에서 도망하여온 상층의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이 기관은 중국 대륙에서 대표로 할 만한 계급과 통치되었던 사회를 잃었다. 이미 '국가'라는 자격을 잃고, 일개의 무장정치집단이라고 부르는데 지니지 않는 존재였다. 대륙시대의 국민당은 신중국의 수립과 함께 이미 역사의 과거로 소거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로서의 각종의 요소(상술한 국가자본, 농업착취체제, 반공공포통치체제, 국가기기를 포함한)를 갖추었다고 말해도, 그 불안정성, 단기성, 순군사성에서, 그것은 단지 내전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에 지나지 않고, 아직 '보나파르트적 국가'라는 성질을 갖추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당시의 미국 중앙정보국이 분석한 것을 통해; 그것은 대만을 강고히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나, 만일 미국의 원조 혹은 점령이 있지 않았다면 1년 이내에 중국인민해방군에 의해 병합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이미 풍전등화이고, 멸망 바로 직전에 서 있는 존재였다.

당시의 국민당정권은 중국내전을 통해, 중국민족과 사회의 자연스러운 변혁에 따라 멸망의 운명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무렵 새로운 역사적 조건이 중국내전의 정세를 변화하고, 중국내전의 자연스러운 진전을 왜곡하여, 국민당내전반공정권의 운명을 변화시켰다. 새로운 생존의 기회와 그 성격을 개조하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 조선전쟁이었다. 미국은 강인하게 대만을 동아시아냉전의 전선에 편입하고 대만은 중전상태 하에 돌과 동시에 중전구조를 수차 대만에서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3. 중전구조에 대한 국민당내전반공정권의 '보나파르트적국가'로의 질적변화

대만에 대한 냉전과 내전의 결과는 즉 아메리카의 동아시아 냉전에 의한 군사반공체제와 대만에 대한 국민당내전반공정권과의 결합이다. 아메리카는 전후 세계의 패권적지위에 의해서 군사, 정치, 경

제, 의식형태의 각 방면에서 전면적인 위기에 직면해 국민당내전반공정권을 지배하고, 아메리카의 이익에 연한 동아시아 냉전의 반공포위망을 추진했다. 아메리카의 군사반공체제의 대만에 대한 실패로 인한 동아시아 냉전의 반공포위망을 추진했다. 아메리카의 군사반공체제의 대만에 대한 실패로 인한 동아시아 냉전의 반공포위망을 추진했다. 아메리카의 군사반공체제의 대만에 대한 실패로 인한 동아시아 냉전의 반공포위망을 추진했다.

1) 냉전과 내전의 결합(중전형성)

1948년 국부군은 패주를 하고, 그해의 말에는 대만으로의 철퇴를 착수하였다. 아메리카의 방침도 중국내전으로부터 자신을 끌어들이어 대만을 세력범위내에 둔다는 방향에 중점을 전화하였다. 이 때문에 대만문제와 중국문제를 나누어 대처시켜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킬 책략이었다.

대만에 대한 정권상의 표현은 ; 장개석의 대만으로의 철퇴를 방해한다. 장개석이 취해 바꾼 다른 것은 친미세력을 대만으로 만들어 끌어올리는데 있었다. 1949년 8월에 발표된 대중국백서에서는 국민당정부에 대해 지지를 방기한다는 선서였다. 그렇지만 장개석은 이미 대만을 지배하고 상술한 것과 같이 내전반공정권을 내에 건립했다. 1949년 10월 1일 친중국이 성립했고 아메리카는 친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모색했다. 그래서 아메리카는 대만에 대해 중국의 주권을 승인한다라는 동시에 대만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혹은 점령의 야심이 없다는 것을 공언했다.

이것과 동시에 다른면에서는 새로운 정세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아메리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1949년 세계경제는 이때까지 정체였다. 세계에 대한 미국보루의 차원에서 끌어들이어 결합하여 확대하고 동년 8월에는 소련의 핵실험이 성공하고 아메리카의 핵독점을 타파했다. 1949년 10월 1일에는 신중국이 성립하고 동년말에는 심양의 총영사를 구급하고 익년 1월에는 북경의 아메리카 영사관을 몰수했다. 1950년 2월 14일에는 소련과의 사이에서 중소우호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신중국은 일련의 반미천소의 노선을 구축했다. 아메리카에 대한 이러한 도전은 이후의 ()를 대표하는 반공이데올로기 현상을 아메리카 국내에서 부르짖었다. 자유세력은 질식하고 아메리카의 대외관계를 반공노선으로 향하게했다.

대일고령정책도 더욱더 우전개하고 1950년 5월그쯤부터 좌익세력에 대한 연계를 끈고 처음부터 배제하고 탄압을 행하는것 같이 되었다. 아메리카국내에 있어서 이러한 광기는 반공의 기운과 반영으로 아메리카의 세계냉전전략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이 최상의 것은 ; 전면적군사포위에 의한 전 세계각지의 사회주의혁명 및 민족해방운동의 대항을 강조하는 1950년 4월에 나온 NSC68문건에 이다. 이것에는 필요에 대응해서 의연히 무력으로 반격한다라고 강조해있다. 아메리카의 세계냉전전략은 군사포위망의 구축이라 하고 신단계에 들어갔다. 2월후 이 문건의 내용은 조선전쟁의 발발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발발로부터 이일간 트루만은 '해협중립화' 선언을 행하고 '대만의 지역 미정론'을 강조하고 대만에 대한 신중국의 주권배제를 모색했다. 동시에 이것은 국민당내전반공정권에 의해 대만에 대한 자유권을 부정하고 아메리카의 대만에 대한 처치권이 강조되었다. 아메리카 제7합대를 대만해협에 진입하고 아메리카에 의한 대만지원체제가 대만에 이입되고 아메리카의 동아시아 냉전에 병행하여 반월형포위망이 완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에서는 죽을 지경에 이르러 대만의 국민당내전반공정권의 위기를 구하고 동시에 다른한편에서는 아메리카의 중국내전으로의 새로운 개입을 불러 대만에 있어서 내전정권의 성격 및 대만사회에 대한 개조의 문호를 연 결과가 되었다.

2) 아메리카의 동아시아냉전에 있어서 대대만 '지배'체제 (미원체제)

아메리카는 대대만 '지원'체제에 의해서 대만에 있어서 동아시아냉전의 의지를 구현하였다. 아메리카는 안정되었고 정치경제환경 및 대외, 내내적 '국가' 요건을 강력하고 유효하게 제공했다. 중국내

전의 범위내에서 멸망에 직면한 국민당내전반공정권을 일개의 반인공적으로 안정시킨 '보나파르트적 국가'에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아메리카가 목표로한 동아시아내전에 병행하여 반공포위망을 봉사시키는 것이다. 이 지원체제에는 이하에서 담아내고자한다.

(1) 기구면

아메리카측의 군사고문단, 대사관, 미원주태부서가 단독으로 대만에 대해서 아메리카 정부의 동아시아 냉전전략에 연해서 활동하였다. 대만측에서는 미원회, 농복회라고하는 두개의 기구가 대만행정계통으로부터 독립하고 아메리카측의 정책에 연해서 활동하였다.

(2) 군사면

제7합대가 대만해협에 진주하고 중국내전을 동결했다. 더욱이 30억 보루 가까이 군사원조로 국민당정권의 방위능력을 강화했다. 단지 대륙진공의 능력은 제한되었다.

(3) 정치면

국민당정권의 대외적 합법제(예를 들자면, 국제외교의 승인, 국연의 의석, 및 각종국제조직의 회원자격)을 지지하고 대만사회를 지배하는 것의 내부적 정당성을 강화했다.

(4) 경제면

제2재형내각의 역할을 해아리자 ; 미원에 의해서 재정과 국수수지의 적자를 보충하고 통화성장을 억제하고 경제건설을 제정하는 동시에 이것을 주도하였다. 또 공영사업에 대해서 임대 결합을 통해서 사회기반의 건설을 행하게 하고 동시에 농복회를 통해서 농업건설을 강화, 및 사영기업에 대여 임대 결합을 행하게 되었다.

이의 주요 목적은 당연한 것이지만 동아시아 냉전에 병행해 포위망구축이라고 하는 아메리카의 목표를 국민당에 집행시키기위해서이다. 그 다른것도 미원은 대만이 아메리카 자본주의에 종속하게 중요한 사회조건을 만들어내었다. 예를 들자면 ; 제2, 제3 단계의 농지개혁 (소현모자작농이 형성된 조건)을 촉진시킨다. 공영기업의 확장을 제약하여 사영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대경제관계의 재건 등을 촉진했다. 그러나 최근의 중요한 것은 일정교의 친미적인 미원경제지출영료(예를 들자면 엄가감, 이국현, 이등회)을 육성하고 동시에 대만사회에 더욱더 자본주의적발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적 및 의식형태에 있어서 조건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국민당이 '보나파르트적국가'에 내적으로 진화하기 위한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3) 국민당 '보나파르트적 국가'의 확립-국민당개조, 농지개혁, 지방자치, 백색테러

국민당정권은 미국의 동아시아 냉전에 수반하는 '지원'을 얻음으로서 소생되었다. 국민당정권은 바로, 내부에 대한 일련의 개조에 착수했다. 냉전의 '지원'은 정권존립의 외부요인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강력한 사회기반이 없으면 그것은 오나전히 인공적인 귀추정권에 지나지 않은 존재일 것이다. 그 때문에 한편으로 국민당내부의 개조를 행하지 않으므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 사회의정치, 경제의 대개조를 행하였다. 동시에 백색테러를 통해서 특히 진전된 사회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에 대한 고도한 지배력을 세워나갔다.

그 개조는 4개면에서 행해졌다.

(1) 국민당개조

조선전쟁의 발발에 따라 미국의 對台 '지원'을 확한 한 익월(1950년 7월) 장개석은 '국민당개조위원회'를 발족하여, 그 후 2년에 걸쳐 개조에 착수했다. 개조의 결과 이단을 배제하고 특히 진전된 당내에서 장개석개인의 독재적지위를 확립함과 동시에 '이당치국'이라는 방침을 강화했다. 요컨대 '당이 정치를 지도하고 당이 군을 지도하고 당이 특무를 지도하고 당이 사회를 지도하는' 국민당 전체체제를 확립한 것이다. 그 특징은 장개석의 고도독재 당조직에 따른 군대, 특무, 정부

의 통제를 통해 사회전체를 특히 강고하게 지배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개조를 통해 난잡하게 진부한 당과 국가기기를 고도로 집중한 것에 전화하고 특히 반동화된 반공조직으로 변화시켰다. 그 개조를 통해 대만사회에 대해 더욱 더 고도의 독재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미국의 대만에 대한 냉전의지에 대해서도 일정정도의 자주성을 보지할 수 있었다. 개조를 거친 후의 국민당은 '보나파르트적 국가'의 혼이었다.

(2) 농지개혁

농복회 및 그 미국 고문의 지도하에서 1951년부터 1953년 사이에 제2, 제3단계의 농지개혁이 행해지고, 수백년에 걸친 대만사회를 지배하였던 반봉건적토지제도는 와해되었다. 그 결과 소규모 자작농이 창출되고 그것이 당시의 주요한 계급이었다. 동시에 신흥공업자본계급도 창출되었다. 그것은 대만사회에 있어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불일치성을 변화시키고, 가족노동의 특질을 지니게만 되었다. 그 때문에 선천적으로 집중된 정치력, 경제력을 형성한 것이 출래되었다. 이러한 소규모자작농을 주로한 사회의 선천적특성이 보나파르트 성격의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사회조건이었다. 이리하여 소규모자작농에 대한 착취제도를 통하여 국민당 '보나파르트적 국가'는 존립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소규모자작농의 형성은 농업생산을 높이고, 신흥공업자본계급에 국내시장 및 자본누적의 원천을 제공했다. 특히 60년대에 들어와 자본주의발전과정의 공업노동력의 주요한 원천도 되었다. 그 때문에 농지개혁은 국민당정권이 '보나파르트적 국가'에 되기 위한 제일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방자치

농지개혁이 대만의 지방사회에서 생산관계를 변혁하고 소규모자작농을 주로한 사회로 변화시켰다. 국민당정권은 지방사회의 정치영역에도 한 번 개혁을 행하였다. 즉 1950년 연말부터 '지방공직인원선거'기 행해짐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농지개혁 후의 지방의 신흥자본계급의 정치역령을 상당정도 반영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 먼저 서술했던 '이당치국'이라는 제도하에서 이 지방제도는 '국가'에 의한 사회지배의 중개기구가 되었다.

(4) 백색 테러

국민당이 대만에 철퇴한 이후 아직 동아시아 냉전에 들어오기 이전인 1949년 후반, 국민당 내 반공정군은 이미 이단분자, 및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조직에 대한 체포, 감금을 행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주육내전의 범위내에서 민족의 내부모순에 기초를 탄압이었다. 1950년 6월의 조선전쟁발발후 대만이 동아시아 냉전의 전선에 섰고, 중전구조가 형성된 후 미국의 냉전지원을 얻은 국민당정권은 미국의 반공 이데올로기증의 심화로 보조를 합쳐서, 何?한 것이 없이 대규모로 잔혹한 체포, 진압, 심문, 감금, 처형을 행하고 사회전체를 공포에 빠뜨렸다.

백색테러는 5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고, 정확한 수자는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萬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4천에서 5천인의 사람들이 총살되었다. 이 백색테러는 중전기구의 중요한 역사적 특징이었다. 그것은 내전의 산물이라고 말할수 있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동아시아 냉전의 산물이고, 동아시아 냉전사의 보편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당시 미국 국내를 뒤덮은 반공이데올로기 증이 냉전을 통해 동아시아 각국에게 확대된 것과 동시에, 저들이 육성하여왔던 반공정권의 손에 의해 집행되었고, 특히 철저한 국제적인 赤色大?정이었다.

대만에서 그것은 모두 사회변혁을 추구 하는 사람들도 조직을 피멸시킬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이 방면에서 지식, 사상, 철학, 예술을 단절시키고, 중전구조의 의지와 사상, 의식형태가 대만의 전부를 강기에 걸쳐 지배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그것이 국민당의 '보나파르트적 국가'가 장

기간 정권의 座에 밀착시키는 것이 되었고, 중요한 조건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본이 원시적 축적을 하는 위에서의 사회적 조건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미국에 종속된 대만자본주의의 발전에 어떤 장애도 없는 大通을 拓하였고, 대만의 자본계급은 정치적으로 어떤 장애도 없이, 예상의로 발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4. 국민당 '보나파르트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지배구조 및 그 특질

위에서 서술 바와 같은 질적 변화를 겪은, 重戰 구조하의 국민당 정권에 의해 구축된 정치, 경제, 사회 각 방면의 지배구조와 제도의 특징은 크게 말하면, 高度 獨裁 형식에 의해 반공집단의 존립을 유지함과 동시에 대만 자본계급의 乳母로서의 역사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었다. 또 그 때문에 '보나파르트' 국가의 특질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각각에 대해서 논해 보자.

1) 정치구조와 지배제도

'以黨治國' '黨國不分'이라는 당정 관계 때문에 광의의 국민당 '보나파르트 국가'에는 국민당 조직이 포함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군대, 특무는 형식상 정부의 일부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지도권은 당조직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중국적으로는 장개석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 그 때문에 국민당 '보나파르트 국가'는 국민당 및 집행당의 의지를 좇는 정부, 군대, 특무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포함되어 있다.

(1) 중앙정부 및 그 대의기관 (총통, 五院 및 國大 등, 소위 헌정법통체제)

소위 헌정법통체제는 1947년에 대륙에서의 내전 중에 형성된 것인데, 만년도 되지않아 '動員 전란시기 임시조관' 계엄령 및 각종의 동원법에 의해서 '헌정정신'은 동결되었다. 그것이 퇴각 시에 대만에 가지고 온, 상층에 속한 법체 체제인 것이다. 대만으로 퇴각한 후에도 이 헌정법통체제는 계속 국민당 보나파르트 국가의 상층에 '헌정의 겉모습'이라는 장식물로서 유지되었다. 그것은 全 中國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內戰 반공정권의 합법성을 유지하고, 대외적으로 자유중국의 포즈를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정치 운용에서는 '당에 의한 정부의 지도'가 관철되어, 당조직의 통제 아래 행정 독재가 실행되었다. 사법권과 검찰권도 마찬가지였다. 입법원과 국민대표대회의회에서 조직된 국회는 어용화된 것에 지나지않아, 영원히 改選되지 않는 정치적 장식물이었다. 일반적으로 '만년 국회'로 불리는 것이다.

(2) 지방정부와 지방대의기관

지방정권은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보통선거에 의해서 생긴다. 농지개혁 이후를 대표하는 각지의 신흥자본 계급은 당연히 자본계급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당에 의한 정부의 지도'라는 특질로부터, 국민당은 補選 혹은 지방의 정치경제적 특권과 바꿔 지방에서의 계파를 만들고 지방 정치를 지배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방법으로 지방정치 엘리트의 충성과 표를 획득하였다. 서로 '지지해주는' 관계를 만든 것이다. 지방정치는 역으로 국민당 '보나파르트 국가'와 사회 대중의 중개물이 되고, 지방사회를 지배하는 일종의 기관, 제도가 되었다.

위 분석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그들 자본 계급의 내용을 갖춘 헌정법통체제 지방자치는 허위로 가득찬 '겉모습'에 지나지 않고 실제 정치지배제도는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최고 국시로 한, 개인에 의한 고도 독재였다. 장개석은 당조직을 통해서 정부, 군대, 특무를 지배하고 나아가 이들을 통해 사회전체를 지배하였다. 그리고 반공계엄체제는 바로 그 지배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 그것은 어떤 계급의 이익도 대표하지 않고 다만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충분히 '보나파르트 국가'의 정치적 특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사회경제구조와 지배제도

대만의 사회경제는 광복 후 일본 資産의 공영화 정책 및 重戰구조하의 농지개혁을 통해서 다음 네 가지에 걸친 구조를 형성하여 갔다.

(1) 소규모 자작농경제

농지개혁에 의해서 생긴, 50년대 사회경제의 주요부분이다. 동시에 국민당 '보나파르트 국가' 존립의 사회기반이며 또 동시에 신흥공업자산계급 누적의 원천이기도 하다.

(2) 국가자본주의 경제

팽대한 국영사업 (국가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원조의 지지 아래 강력한 국가 자본주의가 형성되었다. 그것은 '보나파르트 국가'의 사회경제에 대한 지배의 원천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국가재정의 수단과 사영기업에 대한 지배도구이며 또 한편으로는 농업과 私營기업의 발전에 외적 환경을 제공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3) 민간 자본주의 경제

농지개혁에 수반하여 토지제공의 댓가로 구지주에게 4대 공영사업 (시멘트, 製紙, 농림, 工鑛)의 株券이 보상으로 주어졌다. 이 4대 회사와 대륙으로부터 대만으로 옮겨온 방적자본이 더해져 대만 민간 자본의 기점이 되었다. 민간자본은 미국원조에 의한 대부 및 '보나파르트 국가'의 輸入代替 보호 아래서, 그리고 정치영역의 계엄이라는 대만 사회환경에 의해서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다.

(4) 소상공경제

식민지시대부터 이미 상당히 발전하였던 영세 工商業에 의해 이루어졌다. 앞에서 말한 경제의 보완적 역할을 하며, 이전부터 상당히 안정된 비중을 점하였다. 그것이 이후 대만 중소기업의 주된 원천이 된다.

후자 셋은 모두 소규모 자작농경제에서 발전한 것이다. 그들 同士の 경제적 연계는 국민당 '보나파르트 국가'의 경제에 대한 지배제도에 의지해서 비로소 가능하였다. 다음 세가지 측면이 주된 것이다.

하나는 국가의 농업적 발전 (農復會, 농회)과 착취제도 (미곡징수체제와 分糖制). 이 제도는 농업 잉여를 국가부문으로 이전시켜, 그 일부는 '국가'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원천으로 삼고, 나아가 일부는 수출에 의해서 외화를 획득함과 함께 공업부문의 輸入資金의 원천이 된다.

또 하나는 국가의 공업부문 輸入代替에 대한 보호정책에 기인한, 농공간의 부등가교환제도이다. 나아가 소규모 자작농경제는 안정된 국내시장을 구성하고 공상업은 이 부등가 교환 제도에 의해서 농업 잉여를 자본 누적의 원천으로 삼는다.

세번째는 국가자본주의 제도는 한편으로는 '국가'로서의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私的 資本 累積의 외부 환경을 창출한다.

요컨대 국민당 '보나파르트 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징은 한편으로는 소규모 자작농을 육성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한 착취제도를 통해서 농업잉여를 수탈한다. 이것을 원천으로 자기 집단의 존립 유지를 도모하고 동시에 자본의 원시적 누적을 촉진하여 갔다.

3) 사회통제 -반공계엄체제

重戰구조하의 국민당 '보나파르트 국가'의 또 하나의, 그리고 자장 중요한 특징은 극단적인 반공주의에 있다. 50년대 초의 백색테러는 그 극단적인 형식이었다. 백색테러는 한국전쟁의 종언과 함께 서서히 완화되고, 그것을 대신한 것으로서 30년이상이나 이어온 반공계엄체제가 시행되었다. 이 극단적인 반공주의는 국가, 사회에 대한 절대적인 명령과 같았다. 장개석 독재자를 제하고 黨政軍特의 관계자로부터 거리의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그 귀천 상하를 불문하고 그 절대적 명령을 좇아야만 하였다. 모든 정치적 행동, 경제순환, 사회원리는 이 절대적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고, 감정, 사상, 창작활동 등 모든 것의 절대적 규범이다. 이 범위를 넘으면 모든 숫자가 제로에 맞부딪치는 것처럼

로 바로 無로 돌아가게 된다.

극단적 반공주의체제는 반공계엄체제로서 나타난다. 광의의 반공계엄체제는 사회의식에 대한 통제, 사회행동에 대한 제한, 그것에다가 特務網을 더하여 세가지로 나뉜다.

(1) 사회의식에 대한 통제

최초는 교육계통에 대한 통제이다. 小學부터 大學까지 훈육 혹은 軍訓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학생에 대한 반공 애국사상을 심어준다. 기타 18세 이상의 청년에 대한 징병제를 실시한다. 2~3년의 군사훈련을 받는 사이 청년들의 반공애국의식을 근저로부터 강화한다. 나아가 산문, 잡지, 서적, 광고, 영화 등 대중적 매스미디어를 엄밀히 지배하고 모든 사람을 뒤덮는 반공, 애국, 친미, 봉건, 보수의 사회의식을 만들어갔다.

(2) 사회행동에 대한 제한

'계엄법', '국가총동원법', '비상시기인민단체법' 등의 법령으로 인민의 사상,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사회 행동의 자유를 말살하고 자연스러운 사회관계의 발생을 저해한다. 조종하기 쉽게 사회를 원자화하고 그 응집력을 소멸시킨다. 나아가 국민당이 지배하는 어용사회단체(가령 농회, 노조, 公會, 상회)에 국민의 사회생활 전부를 조직하여 간다.

(3) 특무망

그 집행기관은 권력 중심의 변천에 수반하여 부단히 변화하였다. 50년대 말 당시를 예로 들면 警備總部, 조사국, 정보국, 警政署, 헌병대 등의 기관이 있었다. 그들이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계엄법', '懲治叛亂條例', '檢肅匪諜條例' 등 무수한 반공법에 의해서 사회의 세포 하나 하나를 질식시키고 한 사람 한사람의 행동을 감시하였다. 그것은 어둠에 숨은 거수처럼 언제라도 반공주의의범위에서 일탈하는 사람들을 삼키면서 대량의 정치양심범을 만들었다.

이 반공계엄체제의 효능은 당연히 주로 국민당 '보나파르트 국가'의 존립과 운용의 유지에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본의 급속한 축적을 창출하는 사회조건이었다. 특히 60년대 이후는 노동집약형 수출지향 공업이 자본주의 발전의 견인차가 된 시기로서, 반공계엄체제는 한층 그 적극적 작용을 발휘하였다.

4) 국민당 '보나파르트 국가'의 동아시아 냉전에 대한 중속성과 일정한 자주성

국민당 '보나파르트 국가'는 기본적으로는 重戰 구조에 중속된 것이다. 그러나 장기에 걸친 중국 내전의 역사적 경험과 동아시아 냉전에 포섭되기 이전부터 이미 대만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重戰 구조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자주성을 지녔다. 그 때문에 동아시아 냉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장기에 걸쳐서 안정되게 존립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점이 정변이 빈발한 다른 동아시아 제국의 괴뢰 정권과 다른 점이다.

특히 50년대의 상황에서 보자면 미국의 대만에 대한 냉전의지와의 사이에는 統一 面도 있지만 矛盾面도 있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치군사목표에 있어서: 그 통일면은 군사반공이고, 모순면은 한편으로는 法統 중국을 견지하고 군사反攻을 행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중국과 대만을 분리하여 냉전에 의한 봉쇄에 가담하였다.

경제목표에서: 그 통일면은 안정 경제이며, 모순면은 한편으로는 국가자본과 소농경제를 강화하면서 군사재정을 지탱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미국에 중속된 자본주의 발전 환경을 창출하는 데로 중점을 옮겨갔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아 역사는 미국의 냉전의지의 방향을 향하여 크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큰 방향의 틀내에서만 국민당 '보나파르트 국가'는 일정 정도의 자주성을 보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 양면성은 그 후 대만 사회의 轉化와 發展의 원동력임과 동시에 '보나파르트 국가'가 장기에 걸쳐서 존립할 수 있었던 원인이기도 하다.

5. 결론

본고는 重戰구조라는 시점과 보나파르트 국가라는 개념으로부터, 50년대 前後의 國家共內戰과 東아시아 冷戰이 대만사회에서 구조화되는 역사과정과 국민당 內戰反共政權의 '보나파르트 국가' 형성과 그 전화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논함과 동시에, 나아가 그 '보나파르트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지배구조와 그 특질을 논한 것이다.

국민당 '보나파르트 국가'는 팽대한 당, 정, 군 특무조직을 포함한다. 장개석 개인의 高度한 獨裁를 정점으로 한 당조직을 통해서 정부, 군대, 특무를 지배함과 동시에 사회 전체를 지배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운용을 가능케 한 것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면적 지원이고, 이 지원 하에서 행해진 백색 테러 반공계엄체제와 '국가'의 경제적 자주성이었다. 이들에 의해서 모든 계급, 族群, 개인을 그 귀천을 불문하고 그 발아래 굴복시켰다.

사회 경제면에서는 농지개혁을 행한 것으로 자작농과 신흥 자산계급을 창출하고, 동시에 소규모 자작농의 발전과 착취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소규모 자작농의 잉여을 자기 수중으로 넣고 자기의 집단 이익을 유지함과 동시에 신흥자산계급에 분배하였다. 신흥자산계급도 또 '輸入(*)代替'의 보호정책 아래서 급속한 발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자산 계급에도 속하지 않고, 여하한 계급도 대표하지 않았다. 그것은 앞에서 서술한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지배제도를 통해서 자기 존립을 유지하고 자기의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대만자산계급의 탄생에 촉구하는 역사적 역할을 행하여 왔다. 그것은 허위의 '反功復國'을 목표로 한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유지하면서, 그 절대적 명령에 의해서 모든 지식, 사상, 철학, 의식 형태까지도 바꾸려 하였다. 동시에 사회의 자유, 정의, 합리적 추구를 말살하였다.

대만사회로부터 보면 그것은 한없이 크고 모든 것을 포함한 지고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것은 重戰 구조라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동아시아 냉전과 중국내전이 결합하여, 냉전이 중국내전의 자연스러운 전개(민족, 사회적인 자연스러운 변혁)를 왜곡한 것에 의해서 생긴 특수한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냉전에 의한 내전의 장기적 동결이라는 상황 아래, 그것은 주로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냉전 의지에 종속되었다. 특히 6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계속 미국의 냉전봉쇄전략에 종속됨과 함께 미국자본의 의지에 종속되어 대만사회를 개조하고 미일 자본주의에 의존한 발전을 수행하여 더욱 그 종속성과 대리성을 두드지게 만들었다.

이리하여 당연스럽게 대만사회의 발전에는 독립자주, 자연스러운 발전 (대만의 역사에는 아직 독립자주, 자연적 발전은 없었다)은 있을 수 없다. 重戰 구조 혹은 그 변형(가령 80년대 중국과 미국의 외교관계 수립 후의 '대만관계법체제')이 존재하는 한, 대만의 정권과 사회의 특수성과 종속성 (비자연성, 비자주성)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본고를 집필하는데 陳映眞 선생으로부터 다방면에 걸친 지도, 편달을 받아, 여기에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 이하, [부주]는 생략함.

104
12/10